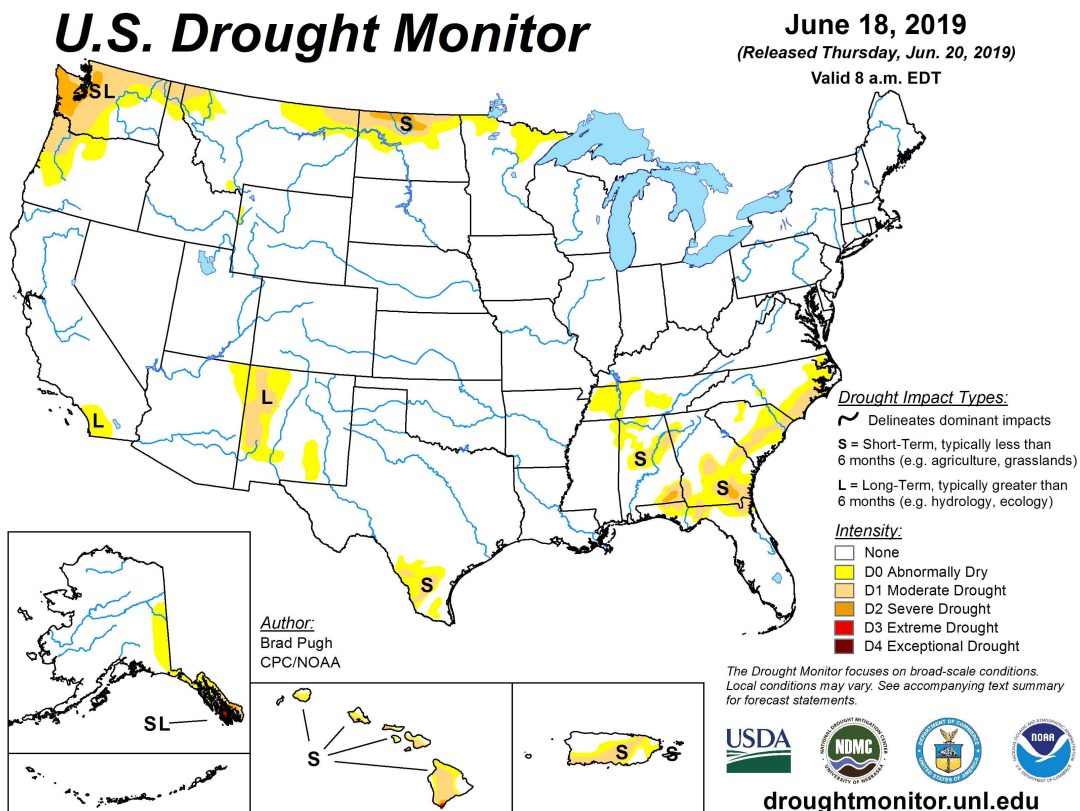


6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5)

□ 미국 기후 현황(6/16~6/22)

미국 중앙부의 여러 곳에서 - 주로 대평원 동중부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 아래쪽까지 - 악화되고 있는 강우로 인해서 홍수가 다시 새로 촉발되면서 늦철 파종 작업들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짝이 올라온 일부 여름 작물을 쓸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넓은 지역에서는 총강수량이 2-4 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고, 붉은 연질 겨울밀의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키기도 했다.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때문에 대평원, 중서부, 남부, 동부의 아주 넓은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이 늦춰졌다. 하지만 오대호 뿔쪽, 고원 남부 같은 일부 지점들에서는 대부분의 강우를 피했다. 로키 산맥 서부는 대체로 날씨가 건조했는데, 서부 산간 지대는 추웠던 반면 대조적으로 태평양 연안 주들과 사막의 남서부는 뜨거웠다. 사실, 서부 산간 지대에서부터 오대호 지역까지는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5° F 이상 낮아서 선선한 날씨에 작물의 생육 속도가 낮게 유지되었다. 대평원 북부에서부터 뉴잉글랜드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간 온도는 80° F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태평양 연안 주들, 남부, 대서양 중부 주들에서는 정상 근처 또는 정상 이상의 온도가 우세하였다.



## □ 농업 현황 요약(6/17~6/23)

강우는 대체로 미국 동부의 3분의 2에 제한되었는데 플로리다, 캔사스, 텍사스, 미시시피 계곡 일부에서 가장 심했고, 어떤 지역에는 4인치 이상 내렸다. 미국 내 많은 곳에서 정상 이하의 온도가 눈에 띄었다. 오대호 일부, 대평원 북부, 로키산맥에서는 정상보다 6° F 이상 낮은 온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남동부, 대서양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보다 최소한 2° F 이상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6/16~6/22)

■ 유럽: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가뭄이 꾸물거리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덥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점점 우세하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동쪽에서는 열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정상보다 3-6° C 높은) 눈에 띄었는데 낮 최고 온도가 30° C를 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34° C 정도로 높았음) 여름 작물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옥수수, 해바라기, 콩은 아직 온도에 민감한 개화 발달 단계에 있지는 않았고 발칸의 여름 작물들은 앞으로 몇 주가 더 있어야 생식에 들어갈 것이다. 더욱이, 유럽 남동부에 지역적으로 내린 강한 비로 (10-90 mm) 토양 수분이 풍부하게 유지되었고, 초기 열 영향을 완화시켜주었다. 먼 북쪽에서는 독일에서부터 발트 국가들까지 비록 변이가 크기는 했지만 (2-55 mm),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가 종실 비대 중인 겨울밀과 유채를 위한 토양 수분을 상승시켜주었다. 화창한 날씨가 있었던 기간에 점점이 내린 소나기는 북프랑스와 남동잉글랜드에서 겨울 작물의 성숙과 건조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전역에서 알맞은 장소에 내린 비는 (10-30 mm) 생식에 도달하고 있는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해주었다.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가뭄이 계속되어 성숙 중인 겨울 곡물들은 가뭄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량 감소를 막으려면 속히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수분 부족은 작물이 거의 개화 중인 이베리아 반도의 중부와 남부 전역에서 가장 심하다. 한편 더 북쪽에 위치한 재배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약간 내리서 (2-22 mm) 포도 수분을 제한적으로 개선해주었다.

■ 구소련(서부): 주말에 소나기가 다시 내리기는 했지만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겨울밀 건조와 여름 작물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서러시아에는 일정 면적의 고기압 지대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늘은 화창했고, 지역 수준으로 열이 증가했다. 주간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4-7° C 높았고 서러시아와 남러시아에서는 낮 최고 온도가 35° C 또는 그 이상이었고, 정상보다 생식기를 최대 2주 앞당겼다. 하지만 주말에 흑해 연안 동부에서부터 소나기가 북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러시아 남서부 일부에서는 2-25 mm의 강우가 보고되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은 6월 23일과 24일에 강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소나기가 생식기에 도달하고 있거나 생식기에 들어가고 있는 옥수수에겐 수분을 적기 공급해주고 있고, 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비가 주말에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북부의 옥수수 지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우크라이나 최북단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역적으로 건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고 건조한 조건은 겨울밀의 건조와 조기 수확에 좋았다. 먼 서쪽으로 몰도바에 내린 중간-심한 비 (15-85 mm)는 영양 성장 중인 해바라기에 유익했고 서벨라루스와 북벨라루스에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10-75 mm)는 봄에 파종한 작물에게 유익했다.



■ 동아시아: 남중국에는 강한 소나기가 우세하여 대부분의 지역에 25-100 mm의 비가 내렸다 (양쯔 계곡 구역들에는 100 mm 이상). 이런 비 내리는 날씨는 영양 생장 중인 단작 벼와 기타 여름 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었다. 이 비가 북중국 평원의 남서부 구역들까지 (허난) 내려서 밀 수확에 좋지 못한 습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북중국 평원의 나머지 장소에서는 여전히 건조했고, 때 아니게 뜨거워서 (온도가 35° C 이상) 밀의 건조와 수확에는 도움이 되지만 영양생장 중인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낮추고 있다. 한편 북동중국의 경우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동쪽 도들에 10-25 mm의 강우가 기록되었고 북동부의 다른 곳들에는 총강수량이 이보다는 적었다. 수분은 옥수수, 콩, 벼에게 좋거나 아주 좋은 조건이 유지되었다. 북한, 남한의 북부, 일본의 북부 절반에는 소나기가 내려서 (10-50 mm) 발달 중이던 건조를 약화시켜서 관수되지 않은 여름 작물에게 좋았지만 많은 지역은 여전히 단기 수분 결핍이 상당했다.

■ 호주: 남퀸슬랜드에서는 주초에 잠깐 내린 소나기가 (2-10 mm, 지역적으로는 이 이상) 가뭄을 거의 경감시켜주지 못했다. 사실상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의 많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겨울밀의 수량 전망에 대한 우려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에도 주요 겨울 작물 생산 지역의 날씨는 대체로 건조했다. 하지만 화창한 하늘과 적당한 표토 수분이 어울려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주에서는 대체로 작물의 상태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 비슷하게 남호주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5-25 mm) 영양생장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에게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좋게 유지시켜주었다. 그밖에 지난 주 흙뻑 젖는 비가 내렸던 서호주에서는 주말에 내린 소나기가 (5-25 mm) 밀, 보리, 캐놀라의 출현과 활착에 더욱 유익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가 정상의 1° C 내외여서 적절한 토양 수분이 이용 가능했던 지역에서는 작물의 발달에 박차를 가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남동부 농장 지역에는 소나기 강우가 강해져서 계절적인 야외 작업을 희망했지만 겨울 곡물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풍부하게 공급해주었다. 엔트레리오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총강수량이 50 mm 이상이었고 (지역적으로는 100 mm를 초과함),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산타페를 지나기까지 10-50 mm의 강우가 내렸다. 하지만 그 밖의 곳에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여름 작물의 마지막 수확 단계와 겨울 곡물 파종을 돕고 있었다.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 근처 또는 정상 이상이었는데, 남부와 동부 농업 지대에서는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코리엔테스를 지나기까지)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2-4° C 높았다. 낮 최고 온도는 남부에서는 섭씨 10도 대 상위에서부터 먼 북쪽에는 섭씨 30도 대 하위까지에 걸쳐 분포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좀더 선선한 남부와 서부 위치에서는 군데군데 서리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21일 현재 옥수수가 61% 수확되었고 콩은 96%로 거의 다 수확되었다. 추가적으로 밀 파종은 전국적으로 39% 파종되었는데 작년 대비 9% 정도 뒤쳐지는 속도였다.

■ 브라질: 두 번째 주간에 브라질 중부, 남부, 북동부의 주요 농업 지역들에는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우세하여 여름 발작물의 성숙을 촉진했고 야외 작업을 하기에 전반적으로 호조 건이었다. 대부분의 농업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는데 (0-5 mm), 해마다 이맘 때 계절적인 강우가 내리는 북부 지역만 예외였다. 남브라질에서는 (마토그로소도술과 상파울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그란데도술을 지나기까지)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3-5° C 높았고, 낮 최고 온도는 섭씨 20도 대 상위와 30도 대 하위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이런 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밤 최저 온도는, 결빙이 널리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었지만, 리오그란데도술 북동부 인근에서는 단 자리수까지 떨어졌다. 파라나정부에 따르면 6월 17일 현재 2차 파종 옥수수는 21% 수확되었고, 나머지 옥수수의 60%는 성숙 중이다. 한편 밀은 87% 파종되었다.